

내달초 전국의대생캠프 여학생한마당 열려

의료계의 여성차별 관행을 깨려는 젊은 여성의학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오는 8월2~4일 청주에서 열릴 제2회 '전국의과대학생캠프'에서 전국 의대 여학생들은 의료계내 여성차별문제를 점검해 해결방향을 모색할 '여학생 한마당'을 따로 마련한다.

전국 의과대학 여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행사인 한마당의 준비를 맡은 서울대 의대 김희성(본과 4)씨는 "20일까지 각 대학별로 여자 선배들이 어떻게 취업했는지, 차별받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사례집 발간과 함께 캠프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고

밝힌다.

전국적으로 신설 의대수 증가와 함께 여자 의대생들의 수도 크게 늘어나 91년 현재 전체 의대생의 20%선을 넘고 있지만 인턴·레지던트 진출이나 취업 등에

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이들이 사전조사를 통해 밝혀낸 차별사례들을 보면 "여자 레지던트를 뽑았더니 외국분위기가 흐려져 3년전부터 일절 여학생을 안 뽑기로 했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과가 있는가 하면 △

레지던트시험을 보기전 과장을 찾아가면 여학생들에게 응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 △학교성적이 일등이었는데도 인턴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에게 성적공개나 분명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 등 대학이나 과에 따라 다양했다.

주로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이화여대 의대 여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이번 '여학생 한마당'

계획이다. 이들은 손씨 사건에 대한 여대생들의 입장을 밝히고, 판결 결과 벌금액이 적거나 패소하면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대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손씨는 지난해 "나의 인턴시험 점수가 남학생 점수중 가장 낮은 점수보다 7점이나 높았는데도 병원쪽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

시켰다"고 주장, 전주지방법원에 전주예수병원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했

지만 기각돼 다시 전주고등법원에 항고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임홍중 검사는 10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어 승소한다면 관행이 돼버린 여자 의대생 취업 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김미경 기자>

"의료계내 여성차별 해결하자"

마련을 계기로 상시적인 '전국 의과대학 여학생협의회'(가칭)를 만들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주예수병원이 인턴시험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3년간 계속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면서 이 병원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한 '손효진 씨 사건' 해결에도 적극 동참할